

계시록 10 장 왕의 예시

계시록 10:1-4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10:1)

이 묘사로 보아 ‘**힘센 다른 천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천사**’란 글자 그대로 ‘사자’를 의미한다. 어떤 계층의 존재인지를 나타낼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다. 따라서 본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계시록 1장에 “그의 얼굴은 해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계1:15-16)고 했으며, 10:1에는 구름을 입었다고 했다.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계 1:7).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24:30)고 하셨다. 그분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도 무지개가 있었음).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히9, 10장)고 하셨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때 그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10:2-3)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리가 펴 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시 찾을 권세를 손에 쥐고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는 큰소리를 발하실 것이다. 그것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의 울음 소리 같은 것이다. 그것은 승리와 환희의 나팔 소리이다.

이사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예언하면서 크게 소리를 치실 것을 말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사42:13). 예레미야도 이와 똑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렘25:30). 호세아 역시 이와 같은 일을 말해 준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호11:10). 마지막으로 요엘도 같은 일에 대해 말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와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욥3:16). 그리스도께서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재림하심은 두세 사람(또는 그 이상)의 증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한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10:4)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 우렛소리를 들으면 요한이 인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의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추측하려고 하는 시도도 어리석은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한이 일곱 우레를 발한 것을 기록하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것은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계시는 완전한 계시가 아니다.

계시록 10:5-17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10:5-6)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인수하는 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을 지체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하실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10:7)

하나님께서서는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퍼질 때 왕국 시대가 실현되리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워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나팔 소리에 대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11:5)라고 한 것은 의미가 깊다. 세상의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즉 한쪽 발은 바다를, 한쪽 발은 땅을 밟으시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계시록 10:8-11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퍼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10:8-11)

요한은 힘센 천사에게 가서 그가 가진 작은 책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천사는 “그것을 먹어버리라”고 말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고, 책을 읽으면 그 책은 자기의 한 부분이 된다. 책을 읽을 때 그것이 약속하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삭일 때, 즉 그 약속이 실현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쓰고 생각하기에도 힘이 든다. 요한은 책이 입에는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음을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앞서서 계시록의 일곱 인봉이 떼어질 때 세상이 겪어야 하는 비극적 사건들과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다.

천사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요한에게 말했다.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예언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천사가 말한 것은 요한이 두 증인 가운데 하나로 올 것이며, 환난 시기에 다시 예언할 것을 말한다고 믿고 있다.(11장)